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

수신	제 시민사회단체 및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산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제목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
일시/장소	2016년 6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가슴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공동주최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박주민, 이정미, 전해철, 표창원 의원실
담당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사무국장 이진우, 010-8746-2590 (uzhamjinbo@gmail.com)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이윤을 위해 안전을 도외시한 채 무리한 운행을 강요한 청해진 해운의 행적이 드러났지만,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이사는 징역 7년만 선고받았습니다. 최근에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안방의 세월호' 옥시사태에서도 책임자와 법인에 대한 처벌은 멀기만 합니다. 한국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이 정도인 것입니다.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토론회를 통해 제정연대가 준비한 법안을 발표하고, 기업처벌을 위한 법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학계와 의원실을 모시고,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4.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될 법안에는 안전의무 위반으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한 기업(법인)과 경영책임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옥시사태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보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상 범죄에 대해서도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 첨부 : 토론회 개요>

2016년 6월 21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산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 개 요 -

- 제목 :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
- 일시 : 6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 공동주최 :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박주민, 이정미, 전해철, 표창원 의원실

- 토론회 프로그램
 - 사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 이진우(사무국장)
 - 인사말 : 공동주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공동주최 각 국회의원

 - 발제 (45분)
 - 발제 1 : 제정연대가 생각하는 기업처벌법 - 이호중_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월호특조위 비상임위원
 - 발제 2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소개와 의미 - 강문대_제정연대 위원장, 민변 사무총장

 - 토론 (90분) : 각계 입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토론사회 : 박주민_세월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토론 1 : 최정학_방통대 법학과 교수
 - 토론 2 : 최명선_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 토론 3 : 이재일_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
 - 종합토론 : 각 의원실 및 플로어 토론